

요한 1 서 묵상 9
(8/22/2020, 토)

찬양: 94(102)(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요한 1 서 2:15-17

말씀에 대한 이해

사도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죄악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며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정욕을 주의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 주신 메시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15). 사도요한이 자신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등에 언급하고 있는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아름다운 피조세계로서의 세상이며, 또 하나의 세상은 타락하고 마귀의 통치를 받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상, 가치관, 삶의 방식, 그리고 죄악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15 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두 번째 의미의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은 그러한 죄악된 세상에 있는 다양한 양상들, 사상들, 경향성 등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라”라는 표현에서 “사랑”은 ‘아가페’ 계열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도가 죄악된 세상과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열렬히 사랑하고 집착하며 매달리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우선순위를 뺏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본문의 문맥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보는 더 자연스럽습니다.

요한은 죄악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사랑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16 절). 요한은 이 표현을 시작으로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16 절 -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육체’, 혹은 ‘몸’을 뜻하는 ‘사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육체’를 묘사할 때 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 타락하고 죄악된 경향을 드러내는 육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갈 5:17 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라고 말씀했고, 19 절에서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라고 하면서 그 이하에서 “육체”가 일으키는 다양한 죄악을 언급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육체입니다.

성도는 육체의 정욕에 빠져들지 않아야 하며, 아울러 세상이 그 정욕을 일으키고 유혹하고 시험함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봄으로 충동되는 그리고 추구하는 정욕입니다. 인간에게 눈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연약한 인간은 그 눈을 통해 유혹을 받습니다. 최악된 세상은 우리의 눈을 자극하여 우리 내면의 정욕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믿음도 없고, 또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눈의 만족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의 왜곡된 심령을 꾸지람하셨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 교만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자랑하는 세상의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불신앙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요한은 위의 세 가지 정욕은 최악된 세상에서 온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17 절). 요한은 성도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17 절 -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는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것 같은 다양한 정욕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간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것이며, 사라지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거하느니라**”는 말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생복락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요일 1 장에서 하나님과의 사귀를 말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귀를 나누는 사람은 최악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잘못된 정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그리고 무엇과 사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잠시 있다가 지나가고 사라져버릴 헛된 것을 좇아 다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2. 지금 내 안에 채워져 있는 다양한 정욕들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림 받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3. 세계 만방에 보내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동역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능력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